

# 성평등전주 개관 2주년 컨퍼런스

# 전주 녹색어머니들, '2050 탄소중립 실현' 동참

### 전주시, 19일 '성평등×사회혁신×젠더거버넌스, 또 길을 열다' 개최

성매매집결지에서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변신한 서노송예술촌에서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 인식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는 전주시, 행정안전부와 함께 오는 19일 성평등전주 커뮤니티홀에서 성평등전주 개관 2주년 기념 연속기획 컨퍼런스 '성평등×사회혁신×젠더거버넌스, 또 길을 열다'를 개최한다.

성평등전주 개관 2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는 젠더 이슈를 진단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 5일과 12일 이어 오는 19일과 다음 달 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된다.

19일 열리는 세 번째 컨퍼런스에서는 '성매매·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인식개선 현안'을 주제로 삼아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센터장 송경숙)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이혜영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와 변정희 부산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소장



성평등전주 개관 2주년 기념 연속기획 컨퍼런스 포스터.

이 각각 '성매매여성 비범죄화를 위한 법개정 운동의 의미와 과제', '성매매 집결지 폐쇄·해체 운동의 의미와 향후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게 된다. 또 신박진영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전국연대 정책팀장은 '유혹과 접대라는 이름으로 착취와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유혹적객원 조항 삭제'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이소아 변호사와 서난이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황지영 인권옹호팀장 등과 함께하는 토론회도 이어진다.

시는 이어 다음 달 3일 성평등전주 개관 2주년 기념식과 함께 '성평등전주 걸어온 길,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주제발표와 토론회를 열고 컨퍼런스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권지현 성평등전주 자문위원과 송원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대표, 서울성평등 활동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일과 12일에도 서울시 젠더거버넌스 활동 사례를 살펴보고, 변화하는 시대의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실태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 관계자는 "이번 연속기획 컨퍼런스를 통해 전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 사례가 젠더거버넌스의 모델링으로 확산됐으면 한다"면서 "성평등전주가 성평등과 사회혁신활동의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시·녹색어머니연합회, 업무협약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는 1만5000여 명의 녹색어머니들이 오는 2050년까지 실질 탄소배출량을 '0(제로)'으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한다.

전주시와 전주시녹색어머니연합회는 16일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실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녹색어머니연합회 완산·덕진지회에 속한 총 49개 학교, 1만5000여 명의 회원들이 생활 속 탄소발생을 줄이기 위한 실천 활동을 독려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는 △생·난방 효율 높이기 △전자기기 사용 시 전력소비 최소화하기 △저탄소 인증제품 및 우리 지역 농축산물 구매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일회용품 줄이기 △분리배출 생활화하기 등 탄소중립을 위한 일상 속 실천에 동참하기로 했다. 또 시가 시민들의 인식 제고 및 참여 확산을 위해



전주시와 전주시녹색어머니연합회는 16일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실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추진하는 탄소중립 맞춤형 단계별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전주시녹색어머니연합회 관계자는 "녹색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돕고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우리의 생활 속 실천이 지구온난화를 막아 인류의 과제인 환경위기를 극복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2050탄소중립 실현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인 만큼 건강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시민들께서는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기 어르신 한궁대회 열려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지회장 전영배)는 16일 덕진체련공원 실내배드민턴장에서 제7회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기 어르신 한궁대회를 개최했다.

건전한 노후 여가생활의 새로운 체육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궁은 한국 고유의 전통놀이인 투호와 궁도를 결합시킨 스포츠로, 계절과 실내·외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대회 단체전에는 전주시역 35개 동 경로당에서 분회별로 남·녀 각 1팀(남 3명, 여 2명)씩이 참여해 기량을 겨뤘으며, 175명이 출전하는 남·여 개인전도 펼쳐졌다.

단체전 1위에는 인후1동이 차지해



우승기와 시상금이 주어졌으며, 2위에는 효자1동, 3위에는 여의동, 4위에는 인후2동이 올라 각각 시상금이 수여됐다.

남자 개인전 1위에는 효자4동 안정환 씨가, 여자 개인전 1위에는 덕진동 범용임 씨가 차지했다. 남자 개인전 2위와 3위에는 팔복동 정길문, 인후1동

이천구 씨가 여자 개인전 2위와 3위에는 호성동 김복금, 인후2동 이육남 씨가 수상했다.

전영배 지회장은 "한궁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동료 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며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운동으로 건강하고 보람찬 노후생활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그동안 같고 닮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좋은 경기를 펼친 어르신들께 단합과 축제의 장이 됐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혁신도시 근린공원 3곳에 음수대 설치

전주시는 총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입해 혁신도시 내 염순근린공원(장동)과 중동근린공원(중동), 월평어린이공원(만성동)에 시민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음수대를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혁신도시 주민들이 공

원을 산책하거나 운동을 하다가 생긴 갈증을 해소해주기 위한 것으로, 시는 지난날 말 공사에 들어가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 및 수도꼭지 점검 등

꾸준한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음수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공원 시설물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이미지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라감영로 문화잔치 '풍성'

### 전주시, 20일 전라감영 옆 잔디광장서 공연·플리마켓 등 진행

이번 주말 객리단길과 함께 전라감영 옆 잔디광장에서도 댄스, 버스킹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청년창업가들의 플리마켓을 만날 수 있다.

전주시는 오는 20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라감영 옆 잔디광장(완산구 중앙동4가 1-6)에서 '전라감영로 문화잔치'를 운영한다.

전라감영로 경관협정운영회와 거리축제 기획단, 상인과 주민들이 함께 전라감영로를 사람과 문화로 채워주는 취지에서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문화공연과 플리마켓, 수공예 체험 등의 콘텐츠가 준비됐으며 미션 게임부스도 가동된다.

문화공연의 경우 전주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해 비보이 공연, 마술, 버블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또 청년창업가들은 우드데이블 30개를 깔고 전주만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들을 판매한다. 또 추억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부스와 함께 플리마켓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100원부터 1000원 단위로 경매를 진행하는 '보부상 경매'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전주시는 오는 20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라감영 옆 잔디광장(완산구 중앙동4가 1-6)에서 '전라감영로 문화잔치'를 운영한다.

시는 행사 현장 출입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시민들의 인원을 제한하는 한편 손세정제와 위생관리 물품도 비치하기로 했다.

이 행사는 오는 27일과 다음 달 11일에도 계속된다.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 관계자는 "공연, 체험 등 다양한 문화행사들

이 전라감영로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최소한 원도심이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일 고사동 옥도주차장 옆 190m 구간에서도 '객리단길 걷고 싶은 거리 문화행사'가 운영된다. /김윤상 기자

# JJC 지방자치 TV

## 지역 문화 콘텐츠

# JJC전북

YouTube | KakaoTV | NAVER TV  
Dolm | NAVER | jjctv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 Btv ch.285 |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